

최근 중국의 석유산업 현황

최 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석유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공급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 정제시설의 확충과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정제능력은 '95년말 현재 공식적으로는 1.8억톤/년(355만b/d)으로 신설 未보고분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면 1.9억톤/년(380만b/d)수준이며, 95년의 원유처리량은 1.35억톤/년이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5개년계획」에 의하면 총정제능력을 '95년의 1.8~1.9억톤에서 오는 2000년에는 2.2~2.3억톤으로 즉 향후 5년간 3천만~4천만톤(60~80만b/d)증대시킬 계획이다. 원유처리량은 2000년에는 1.8억톤까지 늘릴 예정인데, 문제는 증가분의 대부분을 중동원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95년에 약 1억8천만톤에서 오는 2000년에는 4천만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중동원유 수입비율이 '95년의 45%에서 2000년에는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산유량이 줄어들고 자국내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여력이 일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유산업의 큰 문제는 향후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중동의 고유황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정유공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다.

SINOPEC(中國石油化工總公司)관계자에 따르면 제9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신규 정유공장의 건설 계획은 없고, 연해지역의 기존 정유공장 고도화 및 확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능력확대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SINOPEC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섭중인 광둥성의 茂名정유공장(사우디 ARAMCO와 합작) 및 浙江省의 鎮海정유공장(ARCO와 합작) 확장 프



▲ 중국연합석유공사(China Oil)의 산둥성 승리주유소

젝트이다. 작년말 사우디의 나이미 석유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메이저와 함께 산유국도 중국의 석유하류부문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외자에 의한 투자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유일한 외자합작 신규정유공장 프로젝트로 프랑스의 TOTAL, SINO-CHEM(중국화공수출입공사), 大連市가 진행하고 있는 大連정유공장계획이 있는데 완공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동목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SINO-CHEM이 플랜트 건설을 진행시켜 왔는데 코스트 절감을 위해 중

고부품을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바람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결과 거액의 추가투자를 하게 되어 큰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시설은 일단 완성되었으나 가동이 지연되어 파이프라인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SINOPEC의 협력을 얻어 개조나 조정 등 필요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홍콩자본이 참가하고 있는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정유공장 신설이나 확장 모두 외자참여가 지지부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중국정부가 국내판매시장에 대한 외자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화획득을 위해 석유제품의 60~70%를 해외 수출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정유공장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나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측과 외국자본 사이에 큰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만b/d규모 정유공장의 경우, 중국측은 2~3만명의 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반해 외국기업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거대 석유시장인 중국에 대해 메이저나 산유국은 참여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험부담이 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합작사업조건을 둘러싸고 중국정부와 외국기업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국제에너지동향분석, 1996. 5월호>